

한국로타리 (존11, 12) 2018-19 로타리협의회 개최

7월 12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 3650지구 장세호 총재 등 25명 참석



글. 9지역대표 남궁근
서울새한빛로타리클럽

국제로타리 2018-19 존11,12 로타리협의회가 7월 12일(목) 충남 아산경찰교육원에서 한국로타리 1천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매년 그랬듯이 한국로타리 2018-19년도 협의회가 회기 시작하는 7월초에 열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충남 아산에서 폭염 속에도 뜨거운 열기로 진행되었다.

새벽6시 양재동 수협 은행 앞에 집결.

단체버스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3650지구에서 장세호 총재님 포함 25명과 3640지구에서 김종주 총재님 포함 19명, 모두 44명이 탑승하였고, 장세호 총재님과 김종주 총재님이 버스 앞좌석에 두분이 사이좋게 나란히 앉고, 그 뒷좌석에는 박수부 차기총재님과 영부인 한동선 로타리 자원봉사위원장님 내외분이 다정하게 같이 앉고, 3650지구 김중 사무총장과 3640지구 김형성 사무총장이 무슨 말을 하더니 간

식을 나눠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마치자 버스가 로타리 협의회장에 도착하였다.

시장하던 차 소개 중간 중간 맛있는 간식 먹었고 서빙한 회원님께 감사 드린다.

에어컨 버스에서 내리자 작열하는 태양의 열기로 대화장까지 걸어가는데 땀이 등줄기를 흐른다. 뉴스에서 들던 200년 만의 살인적인 무더위란 말이 실감나는 날씨였다.

대회장으로 들어서니 사회자의 각 지구 로타리 회원을 소개할 때마다 회원 참석이 많은 지구에서는 참석자 경진대회 응원하듯이 장내가 떠나갈 듯 했다.

3650지구는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 질러 보았지만 숫자에서 역부족으로 뜨거운 열정만으로 만족했다.

사회자의 전, 현직 총재님들 소개에 이어 개회사, 격려사, 축사, 강의 및 사례발표가 있었고 강의 내용 중 공통적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

3650지구 장세호 총재와 3640지구 김종주 총재가 충남 아산으로 가는 단체버스에서 함께 촬영



1. 로타리의 변화와 감동

로타리 창시자 폴 해리스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113년 역사속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음을 강조하였고 2018-19년도 배리래신 R회장은 “세상에 감동을” 연도 테마로 회원들에게 감동을 주는것부터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2. 국제로타리와 한국로타리

현재 국제로타리 회원수는 120만명 초반에서 2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한국로타리도 2008-09년도 이동건 R회장(3650지구) 재임시절 처음으로 6만명 시대에 진입한 후 10년째 계속 6만명 초반을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로타리의 중흥을 이룩하신 이동건 전R회장님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자랑스럽게 생각된다.

3. 한국 로타리 현황·회원증강

한국로타리는 현재 6월29일 기준으로 1636개클럽 회원 64,890명으로 국제로타리 평균 1개존 36,000명에 많이 부족한 실정(19개 지구)으로 2개 존이 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한국로타리 72,000시대에 성큼 다가갈 수 있기를 강조하였다.



4. 회원증강을 위한 제언

- ① 2018-19 배리래신 R회장은 여러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로타리인들의 정신을 각성시켜야 하며 각자의 능력이나 각자의 잠재력 그리고 우리 모두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갈망을 일깨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② 매년 입회하는 신입 회원수만큼 기존회원이 로타리를 떠난다. 회원구성 불균형, 기존회원 연령 고령화에 따른 여성회원과 젊은 회원 영입 시킬 수 있는 개선된 방안 모색과 리더육성노력
- ③ 클럽 세칙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정기모임을 다양하게 변화하여 운영, 한번은 조찬주회, 다음번은 석찬주회 (예 3650지구 장세호 총재님 시행중-8월, 9월 주회는 하얏트호텔, 10월 주회는 석찬주회로 장소도 다른 곳)
- ④ 배리 래신 R회장의 로타리 회원증강 위해서는 로타리안 자녀를 로타랙터로 추천할 것을 권유 즉, 이순동 3650지구 전 총재의 경우 Family Together운동으로 가족 신입회원 영입을 시행
- ⑤ 새로운 형태의 주회활동으로 지구별 회원증강 목표를 순증감 15%이상, 신생클럽 3개이상 창립 목표를 설정하여 회원영입 권장을 제안
- ⑥ 공공이미지 전략으로 좋은 이미지 확립이 중요하다.
한국로타리가 성립된지 100년(1927년 창립)을 앞두고 있다.
2005년(이규향 전RPIC)에 시행한 로타리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조사에서 인지도 수준은 유니세프, 대한민국 적십자사, 라이온스 보다 저조하며, 로타리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가운데 “듣거나 본적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중 봉사단체라고 답변한 반응이 28%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세계기업의 평균수명은 13년이라고 하는데 30년이 지나면 창업한 기업중 약80%가 사라진다는 것이 집계된 통계수치라고 한다.
한국로타리 100년을 맞이하는 10년동안 회원증강, 재단기부가 잘 이루어지도록 각 로타리안들이 야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치 포병이 원활한 지원사격을 하듯 로타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을 동국 이순동 RPIC(공공이미지 코디네이터)는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5. 2018-19 국제로타리 아산 협의회 동행

3640지구 소개

2018아산 로타리 협의회 참석을 위해 새벽6시 버스에 탑승할 때부터 처음보는 사람이 아니라 24년전 헤어졌다 만난 형제처럼 버스좌석에 나란히 앉아 어깨동무하고 기분 좋게 이야기하며, 3650지구 장세호 총재와 3640지구 김중주 총재는 왠지 무언가를 위해 수장끼리 의기투합 하는 것으로 보여 한국로타리 중흥의 사고를 칠것 같은 느낌을 갖기에 충분조건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큰 인연으로 만났으니 앞으로의 로타리의 동반자로서 3640지구를 소개코져 한다.

- (1) 3640지구는 1994년 7월1일 365지구(현재의 3650지구)에서 24년전 분구되었다.
- (2) 현재 9지역 58개 클럽이다.
- (3) 회원수는 1,210명이다.
- (4) 봉사활동은

- ① 지구차원에서 국내장기 지속봉사-시각장애인 나들이 봉사
- ② 생명의 선물(시각장애인 개안수술)
- ③ 김장봉사(로타리안 400여명 참여)
- ④ 사랑의 연탄봉사(인터랙트와 함께)
- ⑤ DMZ평화통일 공원 사과나무 심기-각지역 봉사개최
- ⑥ 다문화 가정 지원외
- ⑦ 국제봉사 장기추진 봉사 사랑의 백신(네팔 콜레라 백신접종)
- ⑧ VTT사업

(5) 국제봉사(프로젝트별)

- ① 인도네시아 간척지개발사업 공동참여
- ② 콜레라 백신 사업 추진중

(6) 국제봉사 추진(중)계획

- ① 글로벌 장학생 선발 중
- ② 여성유방암 검진사업
- ③ 베트남 팜나이성 초등학교 지원사업
- ④ 대만 3523지구, 3640지구 휠체어 전달사업(국내실시)



끝으로 2018-19 국제로타리 ZONE 11,12 로타리 협의회 참여하신 양촌 이동건 전R회장님, 지산 문은수 R이사님, 중정 윤상구 R재단이사님, 동국 이순동 RPIC님, 그리고 3650지구 임원을 인솔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신 장세호

총재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님 수고 많으셨다.
또한 3650지구와 3640지구 현재 로타리안은 로타리정신으로 협력하여 인류봉사를 위해 노력하실 것을 굳게 믿는다.
감사합니다. ☀

토론과 참여로 진행된 첫 지역대표 회의

글. 1지역대표 한태숙
서울로타리클럽



왼쪽부터 이종원 지구운영고문, 윤영석 지구트레이너, 장세호 총재, 최경순(2지역대표), 강무진(6지역대표), 김중(사무총장), 김학자(10지역대표), 박현영(8지역대표), 한태숙(1지역대표), 남궁근(9지역대표), 연기영(5지역대표), 이영석 지역대표 회장(7지역대표)

지난 7월 6일 장세호 총재 및 클럽 회장 이취임식 후, 처음으로 10개 지역대표 회의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이영석 지역 대표 사무실인 ERA/Century21에서 진행되었다. 장세호 총재, 윤영석 지구트레이너(전 로타리재단 이사), 이종원 재단기부촉진위원장(전 총재), 이영석 지역대표 회장(7지역대표), 한태숙(1지역대표), 최경순(2지역대표), 연기영(5지역대표), 강무진(6지역대표), 박현영(8지역대표), 남궁근(9지역대표), 김학자(10지역대표), 김중(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열린 토론을 하였다.

제일 먼저, 지구트레이너인 윤영석 전 총재는 재단 기부 사항에 대해서 김중 사무총장이 자세히 업데이트한 PHS와 PHF 자료에 감사하며 재단 기부에 대한 현황과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이종원 전총재가 EREY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까지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재단 무기부클럽 해소를 위한 클럽 회장의 연차기금 100\$ 기부, 지구 임원 PHF 1구좌(1,000\$) 기부, 100% EREY를 달성하기 위하여 클럽 별 특성에 맞게 독려하는 방법 등이 의논되었다. 재단기부 100만\$ 달성방안을 위한 지구 내 클럽의 100% EREY, 지구 임원과 지역대표의 PHF 기부 독려 (9월 재단세미나 월례회의에서 약속), PHF 피지명 제도를 활용하여 피지명인에 대한 기부 독려(기부 릴레이), 신규 기부

자 및 고액기부자에 대한 예우, 신규 주요 후원자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PHS 란 평생 US\$1,000을 매년 기부하는 것인데, 이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재단기부 상황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올해 5지역 클럽들은 100% EREY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각 지역대표들도 이런 사항을 각 지역 회장단과의 회의를 통해 회장단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는 것의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장세호 총재는 지구의 가장 기본인 재단 기부와 회원 증강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지구대회는 올해 12월 7일, 하얏트 호텔에서 열릴 예정으로 가능한 이때까지 가시적인 목표 달성을 이루어 발표하는 것으로 하였다. 20여명의 청년 미래지도자를 선임하여 분야별 집중 훈련을 시키고, 소규모 클럽을 위한 합동봉사 기회 및 합동 주회 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는 가치전쟁의 시대로 위기의식을 갖고 비전을 만들어 변화의 팀을 구성하고 성공을 통한 변화를 지속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시대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차세대 리더인 로타렉트를 위성클럽 회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다음 모임은 8월3일에 다시 모여 회원증강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국제로타리3650지구

2018-19 클럽 사무장 협의회 개최



2018-19 클럽 사무장 협의회가 7월 20일(금) 오전 11시 공간스페이스 R.go 에서 장세호 총재와 이영석 7지역대표, 김중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 클럽 사무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장세호 총재께서 2018-19년도 지구 비전과 목표들을 소개하고 나아가 지구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사무장들에게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협의회 이후 가진 오찬에서 총재와의 대화를 통해 지구와 클럽을 더욱 활성화시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모색하고 의논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이영석 7지역대표(서울한강RC)가 운영하는 코워킹 스페이스 “알고 (R.go)”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장소를 무상 협찬 해주었다. 🌻

코워킹 스페이스 “알고 (R.go)” - (장소 문의 : 02-2222-601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동성빌딩 11층(도심공항터미널 맞은편, 1층 하나은행)
(2호선 삼성역 5번출구 도보로 5~10분)

서울삼청 청계 로타리 위성클럽 창립

창립회원 51명, 6월 30일 창립식 개최

직장인 기반 로타랙트클럽인 서울로타랙트클럽 회원들이 위성클럽으로 전환.



서울삼청 청계 로타리 위성클럽의 창립총회가 2017-18년도 회기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 서울클럽 한라산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서울삼청 청계 로타리 위성클럽 판태호 위원장과 강지영 차기위원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창립 회원들이 참석했고, 이순동 총재, 장세호 차기총재, 박수부 차차기총재 등 총재단과 스폰서클럽인 서울삼청RC 원장현 회장을 비롯한 전임회장들과 정취재 회원증강위원장, 엄경섭 질병예방치료위원장, 박윤희 사무부총장, 최경순 차기 2 지역대표 등 지구임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여 신생 클럽 창립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창립식은 판태호 위원장의 내빈소개 및 인사, 배리 래신 차기회장의 축하메시지 상영, 입회선서와 배지 수여, 클럽기 증정, 초대임원진 소개 등으로 진행됐고, 강지영 차기위원장 취임사와 이순동 총재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대금산조의 명인인 서울삼청RC 원장현 회장이 직접 대금 연주를 했고, 가수 베게씨와 추계예술대 재즈팀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이순동 총재는 축사를 통해 “이번 회기들어 배우자들로 구성된 클럽, 로타리 활동을 해왔던 원로들로 구성된 클럽, 학교 선배후배 동문들로 구성된 클럽에 이어 로타랙트 출신 젊은 직장인들로 구성된 서울삼청 청계 위성클럽이 탄생하며, 진정한 패밀리루터더 회원 운동이 완성됐다”고 강조하며, “로타리의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봉사의 대열에 동참해주신 서울삼청 청계 로타리 위성클럽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각오와 적극적인 자세로 빠르게 발전하여 우리 3650 지구를 대표하는 청년 클럽으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삼청 청계 로타리 위성클럽은 2015-16 로타랙트 지구대표를 역임한 판태호 위원장이 주도하여 국제 교류를 통해 해외 로타랙트클럽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대학을 졸업해 서울 소재 회사를 다니거나 대학원에 진학한 국내외 로타랙트클럽 출신 남녀 회원 51명으로 구성됐다.

지나해 9월 16일 서울삼청로타리클럽의 스폰서로 서울 로타랙트클럽을 창립한 데 이어, 일년여의 활발한 주회 및 봉사활동에 이어 2017-18년도 회기내에 위성클럽 전환을 모색하여 오다가 비로서 창립식을 갖게 됐다.

서울삼청로타리클럽(회장 최인훈/차기회장 원장현)이 위성클럽 창립을 스폰서했으며, 이순동 총재가 총재특별대표로서의 역할을 직접 맡아 클럽 창립을 적극 지원했다.

서울삼청 청계 로타리 위성클럽은 앞으로 서울삼청RC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로타랙트를 비롯한 30세 미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회원배가운동을 펼칠 계획이며, 자체적인 국내외 봉사프로젝트 개발과 한국 대만 일본 로타랙트 친선회의 주관 등 신세대 국제교류 사업에 앞장서는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